

금연 이슈리포트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ISSN 2508-8742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0.1mg 담배, 5mg보다 덜 해로울까? 저함량 담배의 진실



CONTENTS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INFOGRAPHIC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포그래픽 저함량 담배의 진실	02
MONTHLY UPDATES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달의 정책• 이달의 연구	04 06
MONTHLY HIGHLIGHTS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달의 이슈 저함량 담배의 진실	08
MONTHLY INDEX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달의 지표 청소년 흡연율 (2) - 매일흡연율	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Vol.47., JULY 2017

발행인 정기혜 기획총괄 선필호 구성·집필 김지혜·이정은·안미래

저함량 담배의 진실

Truth About Low Tar and Nicotine Cigarettes

※ 출처
- 김영연 의원실·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16). - 신윤정. (2008).
- 김현수 등. (2009). - WHO. (2016).

Q 0.1mg, 0.5mg 등 저함량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로울까요?

※저함량 담배란? 담배회사가 주장하는 소위 순한 담배로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표기되어 판매되는 담배를 일컫음

A 기계로 측정되어 표기된 함량은 실제 흡연자가 흡입하게 되는 타르·니코틴의 양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므로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반영하여 실험한 결과, 흡연자는 **최대 약 95배(9.5mg)**의 타르를 흡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유 1

흡연자들은 체내에 필요한 니코틴 양을 흡입하기 위해 보다 깊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보다 많은 양의 흡연을 하는 보상행동을 하여 결국 동일한 양을 흡수함**

저타르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흡연자에 대한 조사 결과



이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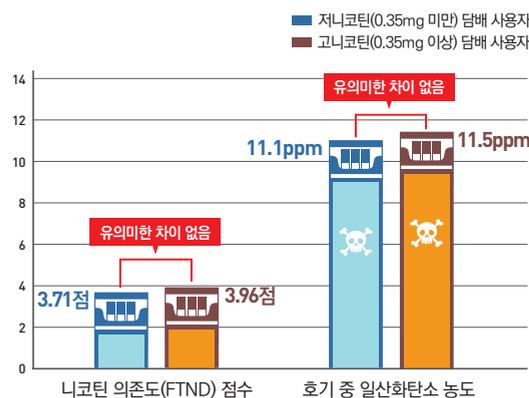
저함량 담배는 천공(Ventilation Holes)으로 인해 함량이 낮게 측정되는 것이나, **흡연자들은 대부분 천공을 손이나 입으로 막고 흡연함**

천공(Ventilation Holes)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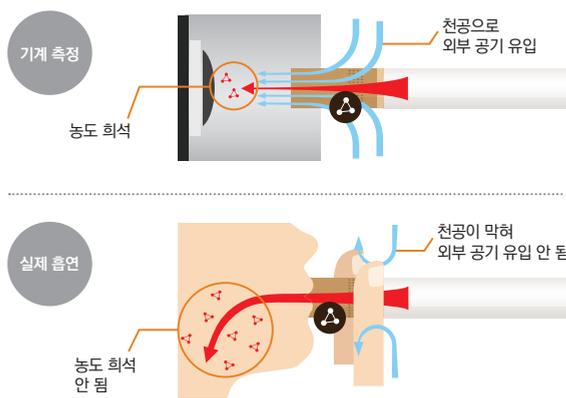


담배 연기 흡입 시 외부 공기가 함께 유입되도록 하여 유해성분 농도가 희석되도록 하는 **담배 필터의 촘촘한 구멍**

사용하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에 따른 영향 차이



기계 측정 방법 VS. 실제 흡연 행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제10조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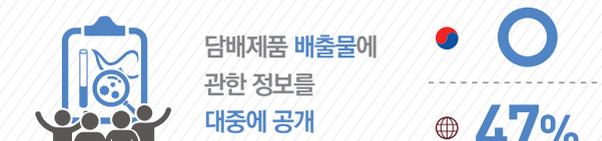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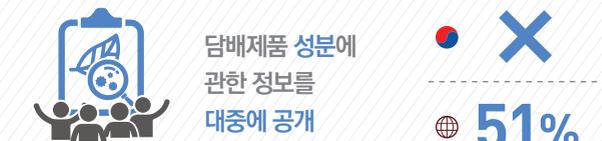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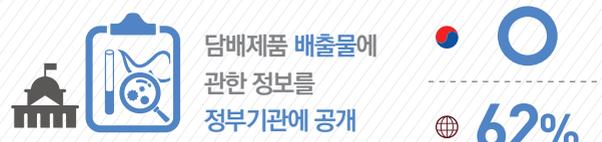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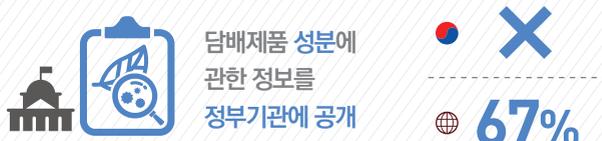
제9조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 국내 이행여부 ○ 세계 이행률



제10조 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 국내 이행여부 ○ 세계 이행률



이달의 정책



**태국,
한층 강화된
담배제품규제법 발효**

이달 4일, 태국에서 2017년 담배제품규제법(Tobacco Products Control Act)이 발효됐다. 태국 보건당국은 담배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과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담배제품규제법과 비흡연자건강보호법(Non-Smokers Health Protection Act)의 일부규정을 통합하여 해당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태국의 담배 구입 가능 최소 연령은 18세에서 20세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시 벌금은 기존 최대 2,000바트(약 6만 7,000원)에서 5,000바트(약 16만 7,000원)로 인상되었다. 또한, 보건부 피야사콜 사콜사타야돈(Piyasakol Sakolsatayadorn)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해당 법은 사원, 의료시설, 약국, 교육기관, 공립 공원, 동물원, 유원지에서의 담배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날개로 켈련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달 6일, 미국 오리건 주 역시 담배사용과 담배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수를 감소시키고자 전자담배를 비롯한 담배제품의 구입 가능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함으로써 미국에서 주 정부 차원에서 담배구입 연령을 상향 조정한 세 번째 사례가 됐다.



**프랑스,
3년 내 켈련 가격
40% 인상 계획 발표**

이달 6일, 프랑스 보건부가 향후 3년 내에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켈련 가격을 한 갑당 10유로(약 1만 2,972원)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아그네스 뷔장(Agnes Buzyn) 보건부 장관은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을 근절하고 공공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켈련 가격은 20개비 한 갑당 약 7유로(약 9,080원)이며, 이는 영국·아일랜드에서 약 10유로(약 1만 2,97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 아니다. 프랑스가 2020년까지 켈련 가격을 목표만큼 인상하면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켈련 가격을 책정한 국가 중 하나가 된다. 보건부 장관은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 중에서 “영국은 담뱃값 인상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흡연율이 약 30%대에서 20%대로 감소한 바가 있다. 반면, 프랑스는 여전히 30%대의 흡연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 표명했다.



이달의 정책에서는 최근 한 달간 담배규제 정책의 도입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외 소식을 전합니다. 세계의 금연정책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여 담배규제 분야의 최신 경향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궤련형 전자담배 안전성 및 유해성 분석 계획 발표

이달 10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종 궤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평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핵심 유해물질인 니코틴, 타르 성분 검사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 궤련보다 유해도가 낮은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궤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이전인 5월부터 유해성 검증 논란이 발생하였고, 6월 정식 출시된 후에는 담배회사의 자체 성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독자적인 담뱃잎 가열방식에 의해 연소과정보다 유해물질이 감소했다는 주장의 검증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12일 식약처는 국내 담배회사에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했으며, 향후 주요 유해물질의 분석과 담배회사에서 수행한 실험과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결정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궤련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검증과 더불어 과세 기준 및 안전 관리 대안과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에 대한 규제 대책 마련에도 과학적 근거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사결과 자료는 출시 예정된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전검증에도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덜란드, 담배제품 진열 및 담배자판기 금지 계획 발표

이달 5일, 네덜란드 정부가 담배규제 정책을 강화하여 2020년부터는 슈퍼마켓에서의 궤련을 비롯한 담배제품의 진열을 금지하고, 2022년부터는 슈퍼마켓 외의 소매점과 담배자판기 상의 담배 진열까지 규제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즉, 2020년에 슈퍼마켓부터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2년 뒤엔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주유소, 간이매점 및 가판대, 편의점, 약국, 담배자판기에도 진열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다. 해당 점포들은 담배제품 진열을 완전히 종료해야 하며, 담배 전문매장(Specialist Tobacco Stores)으로 규정된 점포에서만 담배제품 및 관련 액세서리의 진열이 허용된다. 또한, 음식점 및 주점 내의 담배자판기는 설치 자체가 2022년부터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흡연의 유혹으로부터 젊은 층을 보호하고, 금연하거나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됐다. 네덜란드 보건부 마틴 반 리진(Martin van Rijn) 장관은 “앞으로 소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할 수 없을 것이며, 담배 구매를 쉽고 매력적으로 유도하는 담배자판기도 금지될 것”이라고 해당 규제의 목적을 밝혔다.

이달의 연구



간접흡연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유병률과의 상관관계

박종명, 김현우, 이석환, 박도경, 박은숙. (2017). 간접흡연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유병률과의 상관관계. 대한가정의학회, 7(3):400-404.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흡연은 소화성궤양(peptic ulcer disease)과 위암에 대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간접흡연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유병률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2000년도의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데이터의 횡단면분석을 수행했다. 20세 이상의 비흡연자 3,335명을 분석했으며, 데이터는 설문조사와 혈청학 검사의 참여를 통해서 수집됐다. 간접흡연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혈청 코티닌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혈청 코티닌 수치가 10ng/mL 이하인 사람을 비흡연자로 정의하였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여부는 immunoglobulin G 효소 결합면역흡착측정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진은 인구학 변수, 비타민 C 섭취, 연간 알코올 섭취, 흡연 변수(금연 후 기간, 흡연량(갑년), 흡연 상태), 혈청 코티닌 수치에 따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분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비히스패닉계 백인이 아닌 경우, 출생지는 미국 본토가 아닌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유병률이 높았다.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비타민 C 섭취가 많을수록, 알코올 섭취가 많을수록 유병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과거 흡연자가 흡연 미경험자에 비해서 유병률 교차비가 1.112로 약간 높았다. 간접흡연의 노출 정도가 낮은 수준(serum cotinine $\leq 0.1\text{ng/mL}$)에서 높은 수준($1\text{ng/mL} \leq \text{serum cotinine} \leq 10\text{ng/mL}$)으로 증가할수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간접흡연 노출이 많을수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 이 두 변수는 상관성을 보인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흡연이 공통적으로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위암의 위험인자인 만큼, 본 연구 결과는 위암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흡연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달의 연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발간된 담배규제 분야 학술자료 및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거 기반의 담배규제 추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연구 내용과 주요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봅니다.



최고수익을 거둔 영화에서의 담배사용 묘사 장면 현황 및 추이

Tynan, M. A. et al. (2017). Tobacco Use in Top-Grossing Movies—United States, 2010 – 2016. *MMWR*, 66(26):681–686.

영화 스크린 상에서의 흡연 장면을 보는 연령이 낮을수록 흡연을 시작하기가 더 쉬워지며, 흡연 장면이 고도로 노출된 청소년은 덜 노출된 청소년에 비해 약 2~3배가량 흡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는 최고 수익을 거둔 영화에서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담배 사용 진입을 유도하고 있어 공공보건 상의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관람등급 영화에서의 최근 담배사용 장면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영상물 등급 분류제를 기준으로 G, PG, PG-13, R로 분류된 영화들을 대상으로 매주 최고수익을 거둔 영화 중 상위 10개에서 직·간접적으로 껌련, 엽껌련, 파이프담배, 물담배, 무연 담배제품의 사용을 묘사한 사례를 계수한 2010~2016년 Thumbs Up! Thumbs Down!(TUTD)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이전의 연구들(1991~2010년)과 비교했다. 분석 결과, 2016년 최고수익을 거둔 영화 중 담배사용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는 41%(2010년 : 45%)로, 청소년관람등급 영화는 26%(2010년 : 31%)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는 PG-13(13세 미만 보호자 동반 요) 영화의 경우에도 35%(2010년 : 43%)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 수익을 거둔 영화에서의 담배사용 묘사 장면 개별 건수는 2010년(1,824건)에 비해 2016년(3,145건)에는 72%가 증가했다. 그 중 PG-13 영화는 2010년(564건)에 비해 2016년(809건)에 43%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담배사용 묘사 장면 개별 건수는 2005~2010년까지, G, PG, PG-13 영화에서 꾸준한 감소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 감소추세가 중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영화에서의 담배 묘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의 초기 진전이 정체되었음을 보여주며, 청소년 관람가인 PG-13등급 영화에서 담배사용 묘사 장면 개별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보건 상의 문제가 대두됨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관람등급 영화에서 나타나는 담배사용 묘사 장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과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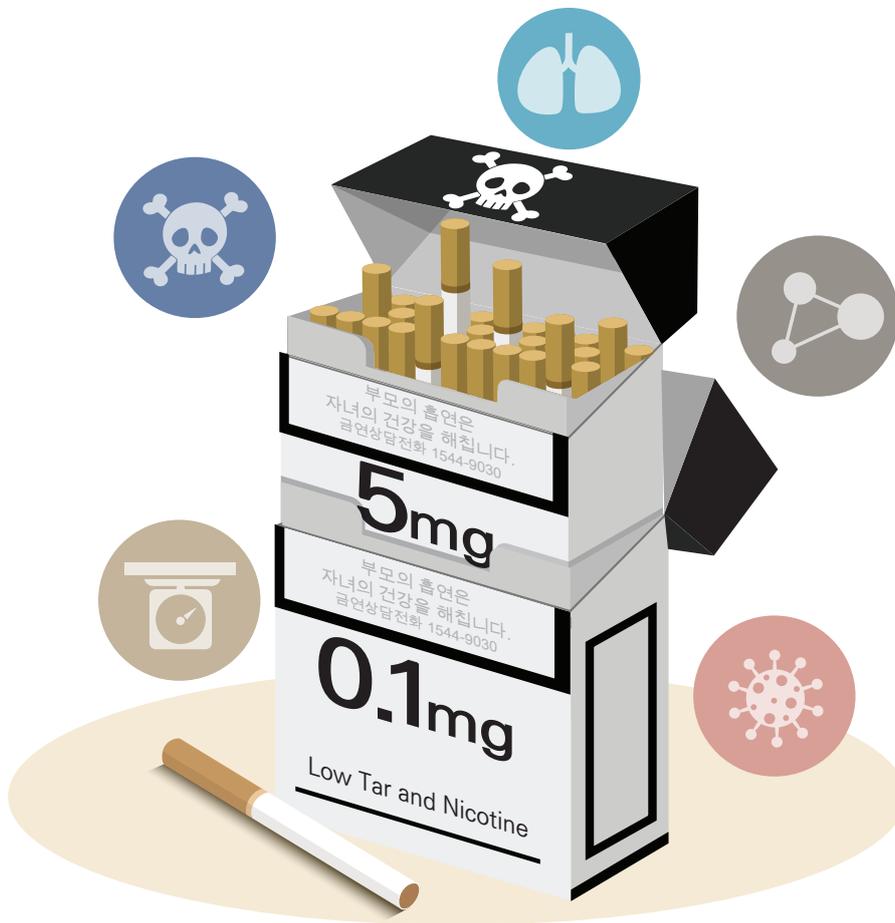
MONTHLY HIGHLIGHTS

JULY 2017

이달의 이슈

저함량 담배의 진실

Truth About Low Tar and Nicotine Cigarettes



당신이 흡연자라면, 담배 진열대에 꽂혀 있는 0.1mg, 5mg 두 개의 담배 중에서 어떤 담배를 사겠는가. 금연하기는 어려우니, 이왕이면 유해성분 함량이 낮은 것으로 고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는 조금 덜 해로워 보이는 담배를 만들어 금연하는 대신 흡연을 계속하면서도 심리적 위안을 주려는 담배업계의 꼼수일 수 있다. ‘함량’을 앞세운 그들의 전략과, 담배규제 측면에서 이러한 전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이달의 이슈에서는 담배규제 분야 주요 이슈를 선정, 국내·외 동향과 정책 현안을 다룹니다. 담배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국외 사례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국내 금연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저함량 담배, 건강에 덜 해로울까?

담배 판매점에 가면, 0.1mg, 0.5mg부터 5mg, 6mg 등 다양한 수치를 담뱃갑 앞면에 표기한 담배들을 볼 수 있다. 그중 담배회사가 주장하는 소위 순한 담배로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표기되어 판매되는 0.1mg과 같은 ‘저(低)함량 담배’는 누구에게나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인식을 준다. 예전과 달리 담배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것에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저함량 담배는 상대적으로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기보다는 저함량 담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심지어는 비흡연자들의 흡연 시작을 보다 쉽게 유도하려는 전략적 상품이다. 실제로, 중국 흡연자의 60%는 저함량 담배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에서 수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함량 담배 사용자의 76%가 언제든 금연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또한 비교적 오래된 자료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저타르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흡연자 중 62.3%가 저타르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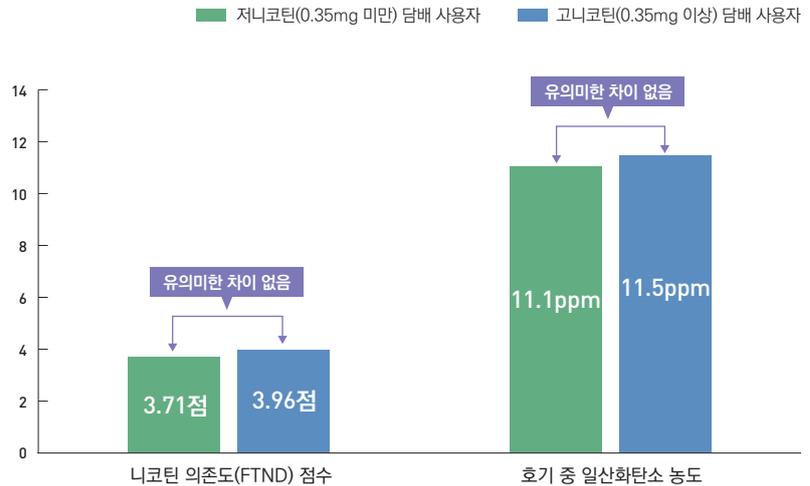
그러나 문제는 저함량 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1950년대 이후의 담배업계 광고와 내부문건을 검토하여 오히려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저함량 담배는 비흡연자를 흡연하도록 유도하고, 흡연자들을 금연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타르 저함량(0.1mg) 담배에서 흡입할 수 있는 타르 검출량에 대해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반영하여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가 표기된 함량보다 최대 약 95배(9.5mg)의 타르를 흡입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도된 바 있다.

저함량 담배의 유해성이 적지 않은 이유

그렇다면 저함량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흡연은 중독 증상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흡연자들은 체내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니코틴 양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독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흡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정한 니코틴 양을 채울 만큼 담배를 피워야 금단현상이 없기 때문에 저함량 담배를 선택하더라도 연기를 보다 깊이 들이마시고, 보다 많은 양의 흡연을 하는 보상행동을 하게 된다. 저타르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흡연자에 대한 국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담배보다 더 세게 혹은 깊이’ 흡입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9.2%,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피우게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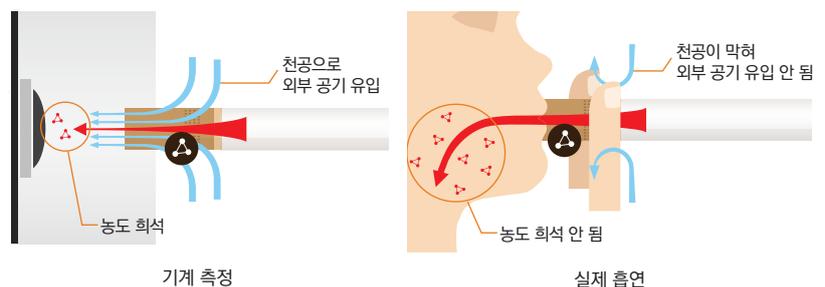
또한, 결과적으로 니코틴 함량이 적은 담배(0.35mg 미만)를 사용하는 흡연자와 니코틴 함량이 높은 담배(0.35mg 이상)를 사용하는 흡연자의 영향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중독 수준을 보여주는 니코틴 의존도(FTND) 점수나 호기(呼氣) 중 일산화탄소 농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저함량 담배를 피우더라도 흡연자는 중독기전에 따라 보상행동을 함으로써 일반 담배와 동일한 양의 유해성분을 흡입하며, 그 영향도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하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에 따른 영향 차이



두 번째 이유는 담배 연기의 성분 측정 방법 자체의 한계에 있다. 담배 연기의 성분 측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측정기준에 따라 기계로 이루어진다. 성분 측정 기계는 모든 담배를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시켜 1분마다 2초 동안 35ml의 담배 연기를 빨아들여 성분을 측정한다. 저함량 담배는 이러한 기계 측정 방법의 한계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이다. 담배업계는 기계로 측정되는 함량을 낮추기 위하여 담배의 디자인을 바꾸는데, 가장 흔하게 천공(Ventilation Holes)을 이용한다. 천공은 기계가 담배 연기를 흡입할 때 외부 공기가 함께 유입되어 농도가 희석되도록 담배 필터에 뚫은 촘촘한 구멍을 말한다. 담배업계는 천공을 기계에 담배를 고정할 때 막히지 않을 곳에 위치하도록 제조한다. 따라서 기계로 측정할 때 천공을 통해 담배 연기의 농도가 희석되어 성분이 낮게 측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측정 기계가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는 것이 실제 흡연자의 흡연 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 흡연자가 실제로 흡연할 땐 천공이 입이나 손으로 쉽게 막힐 수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연자가 저함량 담배를 직접 흡연할 땐 희석되지 않은 담배 연기를 그대로 흡입하여 기계로 측정된 함량보다 많은 양의 유해성분을 흡입할 가능성이 크다.

담배 연기 성분의 기계 측정 방법과 실제 흡연 행태 비교



중요한 것은 함량이 아니라 유해성분 그 자체다

우리가 담배규제 측면에서 간과해선 안 되는 메시지가 있다. 미국 국립암 연구소(NCI)가 발표한 연구의 “안전한 수준의 흡연은 없다(No Safe Level of Smoking)”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즉, 담배업계는 ‘함량’을 앞세워 저함량 담배와 같은 전략을 펼치지만, 중요한 건 함량과 관계없이 담배에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담배제품 성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가 필요한 성분의 검출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가 규제 담당 기관에게 거짓 없이 공유되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분의 위해 정보는 소비자 즉 대중에게 가감 없이 공개되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성분 정보가 오히려 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없도록 내용의 표기 등도 규제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서는 크게 세 가지 조항을 통해 담배제품 성분의 관리 및 규제의 당위성과 규제 방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9조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Regulation of the Contents of Tobacco Products)는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Contents)과 담배 연기 등 담배 사용 시 발생하는 배출물(Emissions)의 검사와 측정 및 첨가물 사용 금지 등에 관한 규제 필요성을 다룬다. 담배업계는 담배제품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보다 매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다양한 성분을 첨가하고 있으며,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이 니코틴 중독을 조장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물을 국가가 관리 및 규제하는 것은 담배제품의 매력도(Attractiveness) 또는 담배에의 의존도(Dependence Liability)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담배제품의 독성 자체를 감소시켜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는 데에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한편, 제10조 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Regulation of Tobacco Product Disclosures)는 담배회사로 하여금 담배의 성분과 배출물에 대한 정보를 정부 당국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이는 담배 성분 및 배출물에 대한 정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배 성분과 관련하여 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담배회사가 정부의 성분 규제 정책의 목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에 사용되는 성분과 흡연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담배 사용과 담배 연기에의 노출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협약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Packaging and Labelling of Tobacco Products)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뱃갑에 표기되는 정보 가운데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를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데, 담배 성분과 관련하여서는 성분의 양적 또는 질적 정보를 담뱃갑에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담배업계에서는 담뱃갑에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의 함량을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본인의 기호에 맞는 담배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FCTC는 오히려 함량 정보가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제품에 비해 덜 유해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 담배 속 유해성분의 함량이 적다고 해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FCTC의 기본 원칙이 포장 규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국내·외 담배 성분 규제 동향

WHO FCTC 제9조 및 제10조 국내·외 이행 현황

WHO FCTC 이행보고서에서 성분 규제 및 공개에 관한 문항은 총 8개로 성분 및 배출물 측정, 성분 및 배출물 규제,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의 정부 공개,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의 대중 공개로 구분되어 있다. 해당 기준으로 국내·외 담배 성분 규제 및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항	내용	세계 이행률(%)*	우리나라 이행여부
제9조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담배제품 성분의 검사 및 측정	44	O
	담배제품 배출물의 검사 및 측정	45	O
	담배제품 성분 규제	54	X
	담배제품 배출물 규제	50	X
제10조 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담배제품 성분 정보 정부기관에 공개	67	X
	담배제품 배출물 정보 정부기관에 공개	62	O
	담배제품 성분 정보 대중에게 공개	51	X
	담배제품 배출물 정보 대중에게 공개	47	O

*2016년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협약 당사국(133개국) 가운데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응답한 국가의 비율

※ 출처 : WHO. (2016).

담배 성분 규제 및 공개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당사국은 바로 유럽연합(EU)이다. EU는 최근 담배 성분 규제뿐만 아니라 공개 측면에서도 조치를 강화하면서 FCTC에서 요구하는 8개 세부항목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EU 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은 궤련과 말아피는 담배에의 가향을 금지하고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 함유량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였다. 또한 담배회사로 하여금 법으로 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각국에 담배제품에 사용된 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영업비밀 보호에 반하지 않은 선에서 담배회사가 제출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한편, 캐나다는 2000년부터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제품의 판매량, 제조 과정, 성분, 독성물질, 독성 배출물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들이 수행하는 연구 및 판촉활동에 관한 정보도 국가에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 중 담배사용으로 배출되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벤젠에 대한 정보는 담뱃갑에 표기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각 성분의 함유량을 수치로 표기하던 기존의 방식이 흡연자에게 담배연기의 독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수치 대신 명료한 문장으로 표기 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캐나다는 담배 성분 규제, 특히 가향 규제에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15년에 가향이 금지되는 담배제품의 범위를 궤련에서 엽궤련(리틀시가 포함)으로 확대한 한편, 올해 4월에는 연방법 차원에서 멘톨 성분 첨가를 금지하는 법을 채택하고 10월 2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담배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 공개를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하였다. 호주의 경우 1997년에 의회가 3대 담배 제조업체에 성분 및 배출물 공개를 요구한 것을 계기로 하여 2000년부터 매년 궐련 브랜드별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는 법적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3대 담배회사(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임페리얼토바코)와 호주 연방정부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담배업체가 제출한 성분 및 배출물 정보는 호주 보건부 웹사이트에 제출된 원본 자료 그대로 공개된다. 뉴질랜드는 2004년부터 담배제조업자로 하여금 정부에 매년 담배제품의 첨가물에 관한 정보와 배출물 내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함유량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출된 정보는 뉴질랜드 보건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성분 규제도, 이에 대한 공개도 반쪽짜리에 그친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 연기 속 6가지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담뱃갑과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니코틴과 타르 외 담배연기 속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성분, 즉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표시되는 함량의 측정기준, 측정기관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 오차 범위 등의 사항은 담배사업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출물 측정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니코틴과 타르에 대한 함량 정보를 수치로 표기하도록 하는 현행법령은 앞서 살펴본 FCTC 제11조의 권고사항에도 맞지 않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저니코틴 또는 저타르 담배로 판촉하는 데에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담배제품 성분, 즉 구성물에 대한 측정 및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고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정부와 대중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화제가 된 가향담배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성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담배 성분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2015년부터 질병관리본부 내 흡연연해연구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배제품 성분 분석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보건복지부도 2018년까지 가향물질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담배의 해로움에 성역은 없다

과학의 발전은 담배제품의 진화뿐만 아니라 담배의 위해성을 입증하는 근거의 발전도 가져온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의 결과는 우리에게 담배는 사용량, 유해성분의 함량, 유해물질에의 노출 경로 등과 무관하게 건강에 해로운 것임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다. 담배 성분과 배출물을 측정하고 규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담배를 덜 위험하게 만들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담배가 초래하는 위험을 근절하기 위한 규제의 수준과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것이 바로 '절대 안전할 수 없는' 담배제품의 진실을 밝히고 그 위험을 알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담배 성분 규제의 진짜 목적이다.

MONTHLY INDEX
JULY 2017



이달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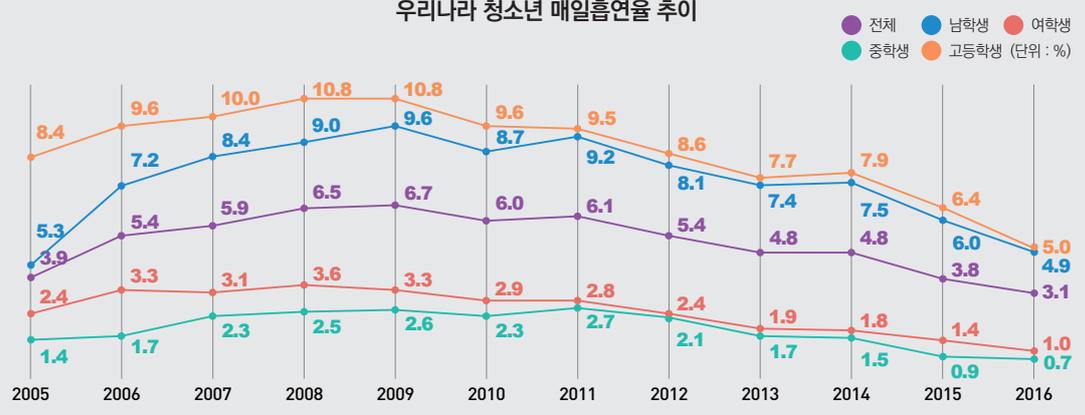
이달의 지표에서는 담배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 규제 지표의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청소년 흡연율 (2) - 매일흡연율
Prevalence of Tobacco Use by Youth : Daily Smokers

청소년의 매일흡연율 현황은 가장 일반적인 담배제품인 궤련의 사용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매일 흡연한 사람의 비율로 정의하여 측정된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매일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기준으로 10명 중 3명의 중·고등학생이 매일 흡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담뱃값 인상 등 담배규제가 집중적으로 강화된 최근 2년간 성별로는 남학생, 학교급으로는 고등학생의 매일흡연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어 성별과 학교급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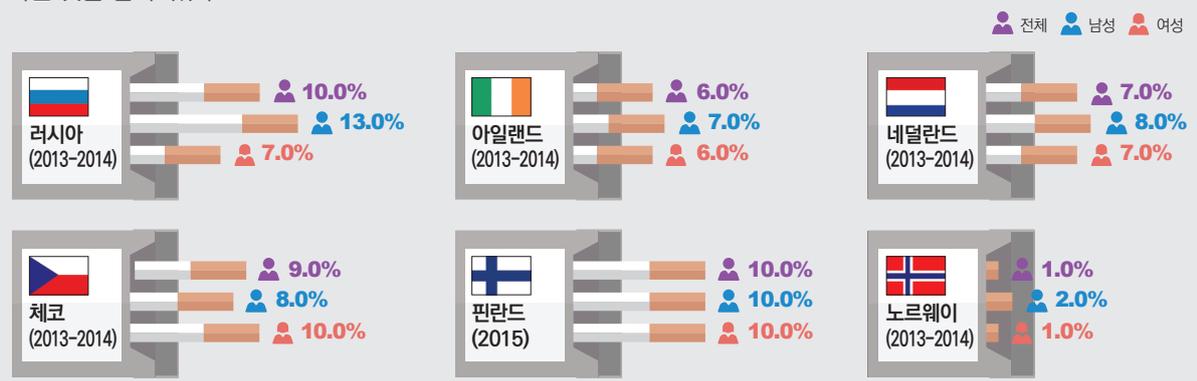
우리나라 청소년 매일흡연율 추이



*매일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매일 흡연한 사람의 비율

※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 (2016).

한편, 청소년 매일흡연율에 대해 우리나라와 동일한 정의로 조사된 국제 자료는 없지만 2016년에 각 국가가 제출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보고서를 통해 일부 국가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국가별 담배규제 정책 이행 수준이 다른 만큼 청소년 흡연율 또한 국가별로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성별 격차 양상은 국가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 출처 : WHO, (2016).



참고문헌

- 김명연 의원실·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16). 김명연 의원실 자료.
- 김현수 등. (2009). 니코틴 용량에 따른 흡연관련 요인. 가정의학회지, 30:519-524.
- 보건복지부. (2016). 성인남성 흡연율, 최고 30%대 진입, 2020년까지 29% 달성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 (2016).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신윤정. (2008). 저타르 담배 등이 흡연 행태 및 금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Tobacco Free Center. (2010). "Light" and "Low-tar" Cigarettes: Design & Perceptions.
- U.S. National Cancer Institute. (2016). No Safe Level of Smoking: Even low-intensity smokers are at increased risk of earlier death.
- WHO. (2008).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 11.
- WHO. (2014). Fact sheet on ingredients in tobacco product.
- WHO. (2016). 2016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WHO. (2016). Partia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s 9 and 10.
- WHO. (2016).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 WHO. (2016).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16 Report of Australia.
- WHO. (2016).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16 Report of Canada.
- WHO. (2016).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16 Report of the European Union.
- WHO. (2016). WHO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2016 Report of the New Zealand.
-

구독신청

매월 금연이슈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요.

홈페이지 : 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8월호 예고

8월호에서는 2017년 세계흡연실태보고서(Global Tobacco Epidemic)를 살펴봅니다. MPOWER 조치를 중심으로 금번 세계흡연실태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통해 국내·외 담배규제 조치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